



## 상지대,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선정

상지대학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0년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에서 7개 과정, 총사업비 5억2천만원 규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인문·사회·예체능 대학 졸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업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중심 교육 과정의 학점연계 사업이다.

상지대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운영을 위해서 충남산학융합원 및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와 협약을 하고 총 7개 장기과정 연수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장기과정은 졸업생과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총 400~450시간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국가직무 능력 표준(NCS) 기반 취업 직무역량을 높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연수생은 과정별 20명을 모집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각 과정 우수 연수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과 대학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혜택도 추가 제공된다.

이상혁 학생행복처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NCS 직무역량 강화 및 취업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기술자격 취득 훈련기관 선정

상지대학교는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비 지원 훈련기관으로 최종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도내 대학 최초로 강원·경기권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배출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상지대가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과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운영되며 대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시행되는 훈련과정 중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은 사회조사분석사 2급과 조경기사 2개 분야다. 일반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은 산림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조경관리실무자양성, 조경기능사, 조경기사 5개 분야다.

정대화 총장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기술자격 과정과 직업능력개발 과정을 개설해 상지대 학생 역량 강화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및 성인 전환기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대학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실질적 공영형 민주대학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관련 학과들은 재학생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정대화 상지대학교 총장